말썽滿載…石窟庵

물기調査토록緊急指示

엄청난附帶費用용도調査

‖“漏水”다·“물줄기”다·“濕氣”다…原因에異見‖

○…준공첫날에 물기가있어 말썽이된 석굴암에대해 7일 문교부는 그원인을 조사보고하도록 문…○
○…화재위원회에 긴급지시했다. 총공사비 2천1백87만원을들여 3년동안의 복원공사끝에 지난3…○
○…일준공된 이석굴암복원공사는 애당초 내부의 누수와 용수를 제거하기위한「돔」의설치,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전실(前室)을 세우는것등이 이번공사의 주목적이었는데 준공첫날부터 본…○
○…존불뒷면과 잡불(雜佛)아래서면에 원인모를 물기가 스며나와 말썽이되고있는것이다.……○

이에대해 석굴암 복원공사로 대통령표창까지받은총감독관 황수영(黃壽永‖東大教授)씨는『지금의 물기는 습기찬외기와 내부의온도차이로 생긴물기』라고말하고있다. 그러나본존불뒷면에는 외기(外氣)접촉으로 생긴 물기이상의「물줄기」가 흘러내리고있음을 준공식당일 많은참관자들이 직접목격했다.

한편 한때황씨와함께 이복원공사의감독에 참여했다가, 일부인사와의 의견충돌로사퇴했던 건축가 김중업(金重業)씨는 7일『현재의물기는 외기접촉으로생긴것도있겠으나 본존불밑에있는 샘의용수가 화강암의모세관에 스며든때문』이라고말하여 황씨의의견과 맞서고있다.

이공사는「돔」과 전실의건축에는 5백35만여원이든데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가 7백55만원, 기초조사비가6백3만원등 도합1천3백58만원이나들어 공사비의반액이상이 부대비용(附帶費用)으로 쓰여져있어 문교부는 비용의 용도에도조사를할방침이다.

“經費支出은 中央서한일” 慶北教委서解明

【大邱支社】경북교육위원회는 석굴암복원공사에『공사비보다 조사비가 더많이들었다』는사실을수긍、『그러나 그복원공사의 설계를비롯한 경비지출결의등일체를 순전히 중앙에서 한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경북도교위측은『중앙의 문화재보존위원회가 설계해서 문교부의 승인을얻은후 신양사(信陽社‖서울)와 하청공사계약을맺고 복원공사를 했던것』이라고말하고『경비도 불국사를 관할하는 월성(月城)교육구청이 문화재보존위원회의결의에따라 지출했을뿐』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漏水아니고濕氣”

慶北教育區廳언명

【大邱支社】속보‖총공사비 2천여만원을들여 3년만에 공사를 끝마친 석굴암내에 습기가생겨 불상에 번지고있다는 사실을 조사한 경북교육구청은 7일 습기의 원인은 누수가아니고「돔」내와「돔」외의 기온차이에서 생긴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습기가「돔」밑바닥까지번지자, 현지 불교신도들은『공사전과 공사후에 다른점이 어디있느냐』고말하면서『누수를방지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진정서를내기로했다.

11年獄살이 再審에着手

間諜으로몰린鄭被告

7일 서울 형사지법원은 전특무대장 고 김창룡(金昌龍)씨에게 간첩으로몰려 11년간이나 옥살이를 해온 정지렴(鄭芝濂‖45)피고인에대한 재심에착수했다.

정피고인은 지난51년 부산제1조병창화재사건때 당시특무대장이었던 김창룡씨에게 동사건의 주범으로몰려 방화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군재에서 무죄판결을받고 석방되었는데 김창룡씨는 정씨를 다시간첩으로몰아 고문과조작으로 군재에서 사형을선고토록했다.

그러나 육군고등군재는 당시관계인의 증언을청취하고 작년10월16일 정씨의 재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내리고 서울형사지법에 이첩했던것이다.

두大學生被殺

言爭끝에 제배도찔려重態

陸軍報道部發表

【寫砂에서本社特派員劉德澤發】경기도 부천군(富川郡)의 한섬에서 육군하사가 대학생두사람을 권총으로 쏘아죽이고 자기도식도로 온몸을 난자하여 중태에빠졌다.

6일낮12시45분쯤경기도부천군 영흥면내오리섬의 임선우씨집앞마당에서 육군9329부대김대성(金大成‖25)하사가 동국대학경제학과4년신국현(申國鉉‖23‖인천시도원동)군과 인하공대광산과4년 임무용(林무용‖23‖富川郡水興面內一里679)군을 4·5구경권총으로쏘아신군에게1발, 임군에게 2발을 명중시켜 현장에서 절명케했다.

이날 김하사는 작전임무를 수행중이었으며 때마침 그섬에 소풍나온 두학생과 사사로운일로 말다툼이 벌어져 격투끝에 총알 5발이 장전된 권총을 김하사가 난사한 것이라한다.

가해자 김하사는 자신도 자결을 기도했으나 총알이 떨어지자 이웃에서빌린 식도로 자기의목을 두군데、아랫배 세군데를 마구찔러 중태에 빠져있다.

局長등3名拘束

大邱電信電話建設局에疑惑

대구전신전화 건설국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7일밤국장 장원선(45)공무과장 임천근(44)씨외 선로계장 장경함(38)등3씨를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는한편 서무과장 서병렬(49)씨와 경리계장 이상국(37)씨를 같은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2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사이에 시외선로확장공사를 할때 인부4백여명의인장을위조하여25만원의국고금을 횡령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40餘名死亡

「멕시코」에地震

【멕시코市(멕시코)6日發AP特電‖同和】「멕시코」의「구에르테로」주에서 5일밤 지진이일어나 4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 지진으로「멕시코」시 서남방2백89「킬로」떨어진「시엘라데·구에르테로」지역의 부락일부가 파괴되었다.

<作品賞>

「물없는여름」

伯林映畫祭施賞

【베를린 7日發AFP‖合同】「이스마일·메틴」감독의「터키」국영화『수수즈·야즈』(물없는 여름)가「베를린」영화제에서 1등상을 차지했다고 7일 비공식소식통으로부터 전해졌다. 최우수여배우상은 일본의「이마무라·쇼헤이」감독의『昆虫記』에서 주연한「히다리·사치코」양이 차지했고, 최우수남우상은「시드니·루메트」감독의『典當舗主』에 주연한 미국의「라드·스티거」、최우수감독상은『마하나가르』(大都市)를 감독한 인도의「사티야지트·레이」가 각각 차지했다고 동소식통은 말했다.

억울한囚人의죽음

無罪확정判決 나흘前에 獄살이13個月에病얻어

엉뚱하게도 살인강도란누명을 뒤집어쓰고13개월동안이나 억울하게 감방생활을 하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기4일전에『억울한 한을풀어달라』는 피맺힌 소원을 안은채 죽어간 사건이있다.

7일 대법원은 경북봉화군소천면(奉化郡小川面)에사는 김휘권(金輝權‖47)、염명섭(廉明燮‖34)등2명의 살인강도피고사건판결공판에서『증거가불충분하다』고 상고를기각、무죄를 확정시켰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확정으로 전기두피고인중 염씨는 자유의 몸이되었으나 김휘권씨는 억울한옥고에서 얻은「대장염전신쇠약탈수증」으로 지난3일 무죄확정판결을받기 4일앞두고 수감중인 대구교도소에서사망、무죄판결의기쁨도 누리지못하고 죽어갔다.

韓國處女머리털 時勢가좋아

美假髮會社長、收集위해來韓

램프안팍 <7日>

○…시골처녀들의 치렁치렁한 댕기딴머리를 비롯해서 숱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머리털이 미국으로 팔려가 그곳 돈많은 사장(社長)족들의 대머리를 단장하게 됐다.

7일하오 미국「필라델피아」시의「쾌이커」가발(假髮)회사 사장「이스라엘·가이어」(51)씨가 부사장인「마누엘·그라인」(35)씨와함께 한국인 머리털 1만「파운드」를 사기위해 서북항공기편으로 내한했다.

◇『가발은 아주비싼 상품이요』― 역시 가발인 자기머리를 쳐들어보이는「가이어」사장.

○…「가」사장은「필라델피아」에서만 3대째세계각국사람 머리털을 수입하여 진짜머리와 다름없는 그럴듯한 가발을만들어 각백화점에 팔아왔다면서 자신도 대머리라서 가발을 썼다고 벗어보였다.

“숱많고質좋고”

社長族대머리단장에一級品
벌어들일 外貨2百萬弗

「가」씨는 34년동안 이사업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어른들가운데 40「퍼센트」나되는 대머리아저씨들의 민대머리고민을 해소해주고 멋내고싶은 부인들의 금발머리부터「할리우드」영화배우들의 가발까지도 만들어팔아 굉장한부자가 됐다고 자랑했다.

세계각국에서 머리털을 수입하지만 동양인、특히 한국인의 머리털이 다루기에 가장 좋다면서 한국에서 매년2백만불어치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보면서 말했다.

○…가발은 가장 비싼 상품의 하나인데 각 백화점에서는 가발한개에 2백불짜리부터 몇천불짜리까지있다고.

○…「가」씨는 5년전부터 종로5가 화경(和京)산업의 유종범(劉鍾範)씨로부터 한국인의머리털을 수입해왔으며 길이가 25「센치 미터」이상으로「파운드」당 11불하는 여자머리털은 시골의 여장수들로부터 행상인들을거쳐 서울에 수집되어「가」씨에게 팔려왔다고. <浩>

義兵戰死者도 追加

獨立有功者審査기준改定

7일 국무회의는 독립유공자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일반의병으로서 전사했거나 피살된 분과 경술(庚戌)합병을 앞장서 반대하여 국내여론을 환기시킨 분은 독립유공자로 추가시키고 독립운동을 돕기위해 사재를 기증했거나 모금운동을한사람、그리고 민족자본을 육성하기위해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사람、독립운동인사를 숨겨준사람은 빼기로했다.

오늘葬禮式

劉基峻先生別世

지난6일 별세한독립운동가 고유기준(劉基峻‖71)선생의 장례식이 8일상오11시 시내을지로2가 대성「빌딩」강당에서거행된다. 유기준옹은 일찌기 상해임시정부특파원으로 국내와 연락하는일을맡아 독립운동에 헌신해왔다. 장지는 서대문구신사동신사리에있는 서울시공동묘지. (연락‖中區乙支路2街199의34 ②5707)

結婚
▲朴德星군(朴福在씨長男) ▲朴明在양(朴贊一씨次女)‖8日상오11시 성도교회에서(主禮 김[illegible]) ▲李浩坤군(李鉉福씨長男) ▲金柏仁양(金相稷씨次女)‖8日正午 鐘路禮式場本館1層(主禮‖申東旭씨)

回甲
▲李在鶴씨(前國會副議長)回甲「다테일·파티」‖8日下午6時 서울大敎授會館

알림
▲「아[illegible]」敎授 新聞學講座‖8日下午4時新聞會館講堂에서 演題「좋은新聞의基準」

訃音
◇魏廷杓씨(陸軍本部官監)6日밤 慶南河東郡金南面葛四里鄭宅에서逝去 發朝‖10日正午
◇李照貞씨(城東女中高校美術敎師)6日上午9時30分 堂峴洞49의2自宅에서別世 發朝‖8日上午10時自宅 葬地‖弘濟洞火葬場

◇5「미터」80「센치」까지 늘어난 한강수위로 철야근무를하는 경찰과헌병들

한때待避소동

“漢江水位” 불었다 줄었다…

7일밤11시 한강수위가5「미터」80「센티」(경계수위7「미터」)까지 불어 서울동부이촌동 20가구와영등포구영오동20가구 도합40가구 약8백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한강수위는 이날밤11시20분경부터 줄기시작했다.

경찰은 한강수위가 늘어날것을 우려하여 한강유역을 계속경비하고있으며 배들을대기시키고 철야근무상태에있다.

▲영오동13평 낮은지대에 사는20가구 8백여명의주민들은 침수될 염려가있어 밤8시부터 인근교회와 공회당에 대피했다.

▲서울동부이촌동303의 20가구 50여명은 밤10시 침수의우려가있어 한강인도교위로 대피했다.

▲동부이촌동 한강백사장위에사는 3백가구 1천5백여명의 주민들도 한강인도교위로 대피했다.

이같이 한강수위가 갑자기 늘어난것은 청평과 화천양「댐」이 만수되어 수문 35개를 다열어놓았는데다가 만조가되어 인천항으로 강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때문이라 한다.

不潔한劇場에警告

6일하오 계엄사령부 치안처장 이광선(李光善)준장은 요새 일부극장에서 ▲환경불결 ▲시설미비 ▲정원초과 ▲미성년자 입장묵인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 계엄사령부는 이러한극장을 적발하는대로 엄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李福述에死刑求刑

黃被告엔懲役10年

喜圭君殺害事件

<李福述피고>

<黃河一피고>

7일하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희규(喜圭‖5)군 유괴살해사건 구형공판에서 관여 박종연(朴宗演)검사는 이복술(李福述‖27)피고인에게 살인및 미성년자 유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공범인 황하일(黃河一‖31)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구형했다.

재판장 문영극(文永克)부장판사 주심으로열린 이날공판에서 관여 검사는『정상참작의 여지가없는 흉악범』이라고 논고했는데 다음선고공판은 21일에 개정된다.

9日求刑公判

亂動民間人들軍裁 7日새벽現場檢證

「데모」때 관용「트럭」을 탈취한 민간인 20명에대한 피고사건을 심리중인 육본계엄군재는 6일 사실심리를마치고 구형공판을 오는 9일상오 열기로했는데 7일새벽1시에는 시경앞에서 현장검증을했다.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자백한 박홍규(朴興奎‖19‖S大生)군등 6명의 피고인은「트럭」에서내려 잡히기까지의 범행을 일일이 재연했다.

煤煙뿜는車輛단속

경찰은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내에서 매연(煤煙)을 뿜는 차량과 경음(警音)을 함부로 울리는 차량을 단속한다.

도둑이「케이블」끊어

釜山과의電信두절

京·釜間만除外한全國各地

【釜山支社】7일낮12시20분부터 부산~구포(龜浦)간「케이블」선(1백50회선)이 도둑에의해끊겨 부산과 전국각지(서울제외)의 전신전화가 두절됐다.

당국은 8일상오까지 복구할 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颱風베티號弱化로

降雨前線南行주춤

中部以北만 계속장마 嶺·湖南은비개여

남하할것으로예상했던 강우전선이 8일중부지방에계속머물고있어 중부이북지방은 오는20일내지 25일까지 계속장마비가 내릴것이 예상되나 한발로 비를고대하는 호남과 영남지방은 7일하오부터 가랑비 정도의비마저 그치고 2、3일안에는 비가내릴가망이 없다고예보했다.

관상대는 제5호 태풍「베티」호가 7일새벽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것으로 예상하고 이날상오6시 각해상에 폭풍주의보를 호남및 영남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내렸으나 7일밤9시현재 태풍은 서해남부해상에서 1천「밀리바」의 온대성 저기압으로 완전히 약화되어 강우전선상의 한저기압으로변해 중부이북지방에만 계속 비가 올것이라고 예보했다.

관상대는 태풍「베티」호가 약화되면서 온대성저기압으로 변하여 강우전선과 어울려 천천히남하, 남부지방에 비를뿌릴것으로 예상했으나 강우전선은 계속중부지방에 머문채있어 남부지방은 소나기외는 비가계속내리지않을것이라고한다.

8일새벽3시 남부지방의 강우량은 대구 0·0「밀리」 울산0·1「밀리」 광주1·2「밀리」정도밖에되지않아 농사에 보탬이되지 않는다고한다.

7일 새벽부터 8일새벽 2시까지 각지방의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서울‖15·5「밀리」▲인천‖1·4 ▲울릉‖0·7 ▲강릉‖0·9 ▲전주‖4·3 ▲광주‖1·2 ▲목포‖1·8 ▲여수‖5·8 ▲추풍령‖2·5 ▲대구‖0·0 ▲포항‖0·0 ▲울산‖0·1 ▲부산‖5·2 ▲제주‖0·6

臨津江범람

華川댐水門여는바람에

【汶山】화천「댐」수문을여는바람에임진강물이늘어나서 7일 상오6시현재 임진면을비롯한 원농면일대 전답8백여정보가 침수되고 문산천이범람독에직경70「센치미터」의 구멍이났다. 파주군당국은 미군부대의 지원을받아 보수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독이 무너지면 문산리1부의4백여가구가 침수되고 이재민2천여명이나게된다.

◇백만인 서명운동명부에 서명하는 육본장병들

소리없는 絶叫…北녘을넘는 메아리‖

一週日만에 12萬名을突破

百萬人署名運動

서명 일주일째를맞은「납북인사송환을위한 백만인서명운동」은 전국의 도시는물론 농어촌에도 메아리쳐가고 일선부대、재향군인단체、각기관에도 날로번져나가 7일하오5시현재 서명인사의수는 12만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본부에는 날마다 아리따운 여대생들이 떼지어몰려와『뜻깊은 이운동에조금이라도 도움될수있는 일을…』맡겨달라고 호소해오고있다.

陸本將兵千餘名도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서명운동에 앞장선 육본장병들은 7일 하룻동안 1천5백61명이 정문앞 서명소에서 서명을 했다.

이날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의 전장병들도 모두 서명을 마쳤다.

서울市警傘下 五千警官호응

본사가 벌이고있는 납북인사 송환을위한「백만인서명운동」에 서울 시경산하 5천 경찰관 전원이 적극 호응、7일 서명을마쳤다.

空軍技術教育團도

【大田支社】이곳공군기술교육단은 단장김동호(金東虎)준장을비롯한 전장병 2천4백여명의「백만인서명」에 자진서명했다.

釜山稅關長拘束

百餘萬원收賄혐의

【釜山支社】7일하오 부산지검수사과는 1백여만원의 수회죄로 수배중이던 부산세관장 최병혁(崔炳革‖45)씨를 수영비행장에구속、부산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작년 12월 부산통관협회의사무감사를 미끼로 31만원을 수회한것을 비롯하여 지난5월까지 사이에 업자로부터 전후12회에 걸쳐 도합1백여만원을 수회했다는것이다. 검찰은 이날하오 8시30분 최씨가 서울에서 항공편으로 수영공항에 내린 즉시 구속했다.

「迎日油田」調査班

가스標本갖고歸京 10日內分析

【大邱支社】속보‖상공부영일유전 현지조사반 일행은 가연성「가스」등 3개의표본을가지고 7일귀경했다. 동조사단의 책임자인 지질연구소 도독파장 이종혁(李鍾赫)씨는 표본분석은 앞으로10일정도 걸릴것이라고말했다.

韓國醫師40名

말聯서派遣要請

【쿠알라룸푸르7日發AFP合同‖本社特約】「말레이지아」정부는 극심한 의사부족을 메우기위해 한국정부에게 협조를요청했다고 7일 정식발표되었다.「말레이지아」보건성대변인은 그들이 2년내지 3년계약으로 한국으로부터 40명의의사를 모집할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18名이危篤

돼지국에食中毒

【泉峴】6일하오8시쯤 파주군천현면오현리 심창길(沈昌吉‖30)씨등 마을사람18명이 상가에서 돼지고깃국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위독상태에 빠졌다.

(8日)
해뜨는시각=5시18분
해지는시각=7시56분
▲京仁=남서풍, 대체로 흐리고 비오는곳도있음(서울기온27도~23도)
▲湖南= 〃
▲嶺南=남서풍, 대체로 흐리고 남부엔 비가옴
▲嶺東=남서풍, 흐린날씨에 북부엔 가끔 비
▲濟州=남동풍, 흐리고 비

◇各海上
▲西海=남서풍, 대체로 흐리고 비올때도있음 (파고1~1.5m)
▲南海=남동풍, 흐리고 비(파고 1~1.5m)
▲東海=남서풍, 대체로 흐린날씨에 북부지방에는 비가 올때도있음

색연필

陸軍에서 두發明品

○…육군은부대이동에 필요한 복잡한 수치(數値)를 쉽게알아내는 환산척(換算尺)과부대형 화포(火砲)의 훈련용「공이집」을발명하여 훈련장비로 정식채택했다.

○…「A급」발명품으로채택된 이고안들은 육본의정헌국(鄭應國‖환산척)중령과 병기감실 이득선(李得善‖공이집)소령에의해 발명되어 참모총장의 표창까지받았다.

○…이 환산척은 과거 10여분씩 부대이동에 필요한 22종의 복잡한 수치를 단25초만에 알아낼수있고、「공이집」은 지금까지 실탄을 쓰던 화포사격훈련에 대용함으로써 연간 약6백만원의 예산을 절약할수있게 되었다니 반가운 일…。

◇사진은 李得善소령

라디오·서울·640 Kc/s 7時 20分 “공생원 上京記”

●新発売

效力 正確

耐性을解決한
第3의結核劑!
베일을벗은 結核의新藥
D.E.T.C <Diethoxythiocarbanilide> 製劑

●베일에 쌓였던 새로운 藥!
抗結核劑의 世界的權威인 부회博士에 依해 開發된「에속실」은 그동안「스위스」에서만 獨占製劑 해왔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롭고도 强力한 藥이며 지금 이웃나라 日本에서도 製品化를 서두르고있는 베일에 쌓였던 新藥입니다.

●아십니까? 이强한 抗菌力!
새로운 抗結核劑「에속실」의 抗菌力은 從來의 그 어느것보다도 强합니다. 外國의 實驗報告에 依하면「파스」의 五○倍·「싸이크로세린」의 六倍·「비오마이신」의 一○倍로 되어있으며「아이나」에 比해 七·二%나 더높은 菌陰轉率을 보여주고있읍니다.

最新耐性結核化學療法劑
에속실
<包裝>一○○정·五○○정·一○○○정

●耐性을 解決한
「第三의 結核劑」!
「에속실」은 파스의 副作用, 아이나의 耐性等 從來의 抗結核劑들의 共通的盲點인 耐性과 副作用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한 第三의 새로운 結核藥입니다.
「에속실」은 耐性이 全혀 없을뿐더러 副作用이 거의 없읍니다. 또한「파스」「아이나」等 다른藥의 耐性에도 뚜렷한 治療効果를 나타내어 짧은 時日內에 菌陰轉을 보게되는 新藥입니다.

●一次藥을 兼한 二次藥!
「에속실」은 다른 抗結核劑와 倂用하실 必要가 없읍니다. 單獨服用으로도 耐性結核의 解決은 勿論! 肺結核을 비롯한 모든 結核疾患을 쉬 治療해드리는 새로운 藥입니다.

製造發賣處 三一製藥株式會社